

광주체육중 최지웅, 광주 근대3종 사상 첫 금메달

무안초 남자핸드볼 창단 첫 동
광주 남초 검도 3연패 대기록
고흥중 신수용 남자역도 금3
광주체육중 김체량 여자역도 금3

제52회 전국소년체전이 지난 27일 울산에서 막이 오른 가운데 광주와 전남 스포츠 꿈나무들의 메달 레이스가 빛을 발했다.

역도와 육상에서 다관왕이 배출됐고 근대3종과 핸드볼 등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이 나오면서 초·중학교 선수들이 그동안 흘려온 땀과 치열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몽글한 장면이 연출됐다.

◇역대 최고 성적 눈에 띄네
무안초 남자핸드볼은 2014년 팀 창단 후 첫 소년체전 입상을 기록했다.

무안초는 29일 신일중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핸드볼 남초부 준결승 경기 동부초와 경기에서 24-26(12-12 12-14)으로 지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동부초는 올해 협회장배 대회 결승에서 24-39로 패했던 팀. 무안초는 김승용(6년·CB)이 24골을 터트리며 결승 진출을 향한 의욕을 불태웠으나 시소 게임 끝에 후반 역전을 허용하며 동메달로 아쉬움을 달랬다.

무안초 남자핸드볼팀은 무안해제초 남자핸드볼이 해체하면서 2014년 창단됐다. 학생 수 감소와 비인기 종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선수를 육성, 지난 2021년 태백산기대회에서 창단후 첫 동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광주체육중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근대3종에서 첫 금메달 배출을 포함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을 획득, 지난 2014년 팀 창단 이후 첫 소년체전 입상을 달성했다.

제1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초등핸드볼대회와 제78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한 바 있다.

근대3종에서는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첫 광주 소년체전 금메달이 나오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광주체육중 최지웅(3년)이다.

올 시즌 두 차례의 전국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최지웅은 소년체전에서도 실력을 발휘, 개인전과 계주 2관왕을 차지했다.

남중부 개인전 수영에서 293점을 기록해 3번째로 레이저런(사격+육상)을 출발한 최지웅은 첫 바퀴를 돈 뒤 곧바로 1위로 올라섰고 누구에게도 추격을 허락하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했다. 이튿날 계주에서 이도규(3년)·이지훈(1년)과 호흡을 맞춰 1위에 올라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근대3종 최우수선수 영예를 안았다.

광주 근대3종은 여중부에서도 메달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중 이지아(2년)가 여중부 개인

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박유민(3년) 송현서(2년), 양보민(1년)까지 합류한 단체전에서 3,112점으로 은메달을 기록했다. 박유민·양보민·이지아는 여중부 계주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육중은 근대3종 출전선수 8명 중 7명이 메달을 획득했다.

검도 남초부에서는 광주선발이 소년체전 3연패 대기록을 수립했다.

문율(임동력검도관 6년), 임도운(오치검도관 6년), 정시현(오치검도관 6년), 허경도(고실검도관 6년), 허은도(고실검도관 5년), 권순현(진성검도관 5년)이 나선 광주선발은 결승에서 전남 선발을 상대로 1-0으로 승리,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48회, 제51회에 이은 대회 3연패(49,50회는 코로나로 미개최) 쾌거다. 허경도와 허은도는 형제 선수로 출전해 남다른 호흡을 선보였고 형 허경도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며 소년체전 검도 2년 연속 MVP라는 영예를 안았다.

◇효자종목 역도 무더기 다관왕
고흥중 신수용(3년)은 29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중부 89kg급에서 인



은메달1개, 동메달 2개 등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사진 왼쪽). 무안초 남자핸드볼은 남초부

상 112kg 용상 140kg 합계 252kg을 들어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육상에서만 동메달을 획득하고 인상과 합계에서 4위를 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신수용은 자신의 마지막 소년체전을 3개의 금메달로 마무리했다.

광주체육중 김체량(3년)은 역도 여중부 +81kg급에서 인상 75kg 용상 102kg 합계 177kg으로 3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합계 2위 중남 박가은(성광중 3년·168kg)보다 9kg 더 앞선 압도적인 메달이었다. 지난날 제34회 전국중체여역도경기대회에서 인상 67kg, 용상 100kg, 합계 167kg으로 우승, 소년체전 3관왕을 예약했던 김체량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3개의 금메달을 광주선수단에 안겼다.

안도중 김태양(2년)은 역도 남중부 73kg급에서 인상 100kg 금메달, 용상 119kg 은메달, 합계 219kg 금메달로 2관왕에 올랐고 구례여중 최지우(2년)는 육상 여중부 400m에서 56초91로 우승한 뒤 1,600m계주에서도 전남선발로 뛰여 1위로 골인,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염양초 문승유(4년)는 수영 여초부 4학년 이하부 평영 50m와 100m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첫 소년체전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에어로빅합학댄스 전문스포츠 클럽 박태영(3년)도 에어로빅 여중부 개인전과 5인조전에서 우승하며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체전 금빛 피날레 도전
농구 여중부에서는 광주 수피아여중이, 배구 남중부에서는 전남 순천팔마중이 각각 결승에 진출, 대회 마지막날인 30일 금빛 피날레에 도전한다. 수피아여중은 지난해 소년체전 우승팀으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순천팔마중은 2017년 제46회 소년체전 금메달 이후 6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린다.

축구 여중부에서는 전남 광영중이 경북을 상대로 4-0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 30일 경남 진주여중과 우승을 다툰다. 광영중은 소년체전에서 두 차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번에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소프트테니스 여초부에서는 광주선발이 결승에 진출했다. /울산=최진화 기자

“악으로 강으로 버터... 금메달 행복”

근대3종 MVP 최지웅

“소년체전까지만 버터보지는 생각에 악으로 강으로 준비했는데 결실을 맺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근대3종 2관왕과 함께 종목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광주체육중 최지웅(3년)은 “제 플레이 스타일대로 경기가 잘 풀렸다”면서 “운동도 하면 그만 큼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동안 훈련이 정말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기뻐했다.

최지웅은 근대3종 남중부 개인전과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 소년체전 광주 근대3종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개인전 레이저런에서 3번으로 출발, 한 바퀴 돈 뒤 곧바로

로 선두로 치고 나선 최지웅은 압도적인 레이스로 우승했다.

최지웅은 개인전이 끝난 뒤 “몸을 푸는데 느낌이 괜찮았다. 시합을 하면서 몸이 가는 대로 뛰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처음에 끌어올려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등수를 방어하는 타입인데 계획대로 잘 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예린 코치님 오시고 나서 첫 금메달이라고만 들었는데 소년체전 첫 금이라고 하니 더 영광이다”고 덧붙였다.

최지웅은 힘들었던 동계훈련이 이번 소년체전 금메달을 따게 된 배경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러닝이 특기이긴 하지만 실력을 끌어올리려 강도를 높였다. 빠르게 뛰고 지속해서 유지하는데 집중했다. 몸 상태가 올라



최지웅

오면 더 강도를 높여서 끌어올리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결실을 맺으니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학 후 근대3종으로 전환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운동 DNA를 물려받았고, 근대3종에서 재능을 꽃피우는 중이다.

최지웅은 “1차 목표였던 소년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가겠다”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펜싱을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 메달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제 시작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수원FC 제물로 7경기 무승 탈출



K LEAGUE 1

수원FC를 상대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슈팅 20개·유효슈팅 14개를 바탕으로 수원 FC에 맹공을 퍼부은 광주는 리그 7연속 무승(3무 4패)에서 탈출했고, FA컵 포함 2연승과 3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렸다.

광주는 4-4-2 전형을 내세웠다. 이인기, 안영규, 티모, 두현석이 포백 수비진을 꾸렸고 정지훈, 이순민, 정호연, 아사시가 중원을 형성했다. 투톱에는 이희균과 토마스가,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수원은 3-4-3으로 맞섰다. 짝순, 김현훈, 최보경이 쓰리톱으로 출전했고 중원은 정동호, 박주호, 정재용, 이우이 나섰다. 스리백에는 정재용, 라스, 장재용이, 골문은 노동건이 지켰다.

광주는 수원FC와 초반 중거리 슈팅으로 기회를 주고 받았다. 전반 13분 수원FC 장재용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한 광주는 3분 뒤 이순민의 목격한 중거리 슈팅으로 맞섰다. 전반 22분에는 정호연이 오른쪽 중거리 슈팅을 때렸지만 노동건 품에 안겼다.

광주가 전반 31분 결정적 기회를 잡았

다. 이희균이 페널티 지역 왼쪽 사각지대에서 시도한 오른발 간악차기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강타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엄지성과 허을을 동시 투입하며 공격에서 승부를 걸었다.

후반 들어서도 광주의 공세는 계속됐다. 엄지성이 후반 3분 시도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노동건 품에 안겼다. 후반 14분 아사시의 왼발 중거리 슈팅, 16분 이희균이 쇄도하면서 시도한 헤더 역시 노동건 선방에 막혔다.

수원FC의 골문을 두드리던 광주는 후반 30분 선제골을 기록했다. 아사시의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공을 안영규가 잡았고 티모가 헤더로 연결해 수원FC의 골망을 흔들었다. 골 운까지 따랐다. 후반 38분 아사시가 왼발 슈팅을 때렸고, 수비 맞고 굴절돼 상대 노동건이 손을 쓸 수 없는 골로 이어졌다.

분위기를 탄 광주는 끝까지 몰아쳤다. 후반 43분 이순민이 시도한 오른쪽 중거리 슈팅은 크로스바를 때렸다. 이후 김한길을 투입하며 공격에 박차를 가했으나 득점 없이 2-0 완승으로 마무리 했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많은 기회에도 득점이 나지 않아 현기증이 날 뻔했다”며 “8경기 만의 승리, 5월의 첫승, 쉽지 않은 원정 3연전의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조해원 기자

전남체육회 깜짝 이벤트

체전기간 생일 8명 선수

케이크·선물 전달 격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생일을 맞은 전남 대표 선수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송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생일을 맞은 선수들의 숙소를 방문,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회장은 “대회 기간 생일을 맞은 선수들은 시험때문에 집이 아닌 타지에서 제대로 생일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는 생각에 선수들을 격려할 겸 직접 만나 축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 기간 생일을 맞은 전남 소속 선수는 핸드볼, 유도, 바둑, 야구 등 7개 종목에 총 8명, 핸드볼 조영기(무안북중), 유도 정서빈(광양마동초), 바둑 약지우(한국바둑중), 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 27일 제52회 소년체전 기간 생일을 맞은 전남 핸드볼 대표 선수 무안북중 조영기가 머무는 울산 숙소를 방문해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는 깜짝 생일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구 정승희(화순중), 복심 차태영(전남체육중), 하키 서은찬(담양중)·김서영(목포여중), 탁구 손준혁(광양중동중)이다.

일정 상의 문제로 직접 선수를 방문하지 못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송진호 회장이 직접 격려 통화와 함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전달했다.

송 회장은 “체전기간 타지에서 생일을 맞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 이벤

트를 마련했다. 체육회에서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달하고 싶었고 대회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체전 기간 생일을 맞은 8명의 대표 선수중 약지우는 바둑 여중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차태영은 복싱 밴텀급 동메달, 김서영은 하키 여중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KIA, 여름 맞이 선전 기원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는 홈페이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KIA는 내달 7일까지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풀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홈페이지 회원은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 2개를 풀고 선수들에게 선전기원 메시지를 남겨 참여

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는 브레드 이발소 컬러버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에 하며, 당첨자 통지는 홈페이지 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이번 이벤트는 1인 1회 응모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해원 기자